

37년 만에 기업분할 승인... SKT·SK스퀘어로 '새출발'

'SKT 2.0 시대' 개막

임시 주총서 분할안 의결 밝혀
내달 29일 각각 변경상장·재상장
SK스퀘어는 반도체 투자 회사로
박정호 대표 "주주 가치 극대화"

SK텔레콤이 37년 만에 지배구조 개편을 단행하며 통신사와 투자전문 회사로 분할된다.

SK텔레콤은 12일 본사 T타워 수펙스홀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SK텔레콤-SK스퀘어 분할안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출석 주주 수 기준으로 인적분할 안건의 찬성률은 99.95%, 주식 액면분할 안건의 찬성률은 99.96%를 기록해 국민연금을 포함한 기관은 물론 개인 주주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SK텔레콤과 SK스퀘어는 다음 달 1일(분할기일) 새롭게 출범할 예정이다. 현 SK텔레콤은 주식 매매거래지정 기간(10월26일~11월26일)을 거쳐 11월 29일에 SK텔레콤, SK스퀘어로 각각 변경상장, 재상장 된다.

박정호 CEO는 "회사 분할의 가장 큰 목적은 주주 가치 극대화이며 분할 후



박정호 SK텔레콤 CEO가 12일 본사 T타워 수펙스홀에서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SK텔레콤

통신과 투자라는 명확한 아이덴티티로 빠른 성공 스토리를 써 나가겠다"며, "지금까지 잘 키워온 포트폴리오 가치를 시장에서 더 크게 인정받고 이를 주주분들께 돌려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은 AI·디지털인프라 서비스 회사로 탈바꿈해 2020년 15조 원의 연간 매출을 2025년 22조원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3대 핵심 사업인 유무선통신, AI 기반 서비스, 디지털인프라 서비스에 집중할 예정이다.

유무선통신 사업은 5G 1등 리더십을 공고히 하고 미디어 서비스의 성장세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AI 기반 서비스는 지난 8월 출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구독 서비스 'T우주'를 온오프라인 구독 커머스 플랫폼으로 진화시키고,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랜드(ifland)'와 연계한 메타버스 사업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디지털인프라 서비스 사업은 5G MEC(모바일에지컴퓨팅) 등을 활용해 성장성이 높은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Industrial IoT 사업을 본격 확대할 예정이다.

SK텔레콤 산하에는 유무선통신 사

업 등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피에스엔마케팅, F&U 신용정보, 서비스탑, 서비스에이스, SK오앤에스 등이 위치한다.

SK스퀘어는 반도체·ICT 투자전문 회사로 출범한다. 지금까지 반도체, ICT 플랫폼 사업 투자를 통해 축적된 투자 성공 DNA를 바탕으로 현재 26조 원 순자산가치를 2025년 약 3배에 달하는 75조원으로 키운다는 비전이다.

'광장' 또는 '제품'을 뜻하는 사명처럼 반도체, 미디어, 보안, 커머스 등 주요 포트폴리오 자산을 기반으로 과감하고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대한민국 ICT 업계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SK스퀘어는 상장회사로서 여느 비상장 투자회사(PE)와 달리 일반 주주들도 회사의 투자 활동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SK스퀘어 산하에는 16개 회사를 편제한다. 대상 회사는 SK하이닉스, ADT캡스, 11번가, 티맵모빌리티, 원스토어, 콘텐츠웨이브, 드림어스컴퍼니, SK플래닛, FSK L&S, 인크로스, 나노엔텍, 스파크플러스, SK Telecom CS T1, SK Telecom TMT Investment, ID Quantique, Techmaker다.

주주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은 올해 SK텔레콤의 주주 가치 제고 노력에 변함없는 지지를 보였다. 이에 SK텔레콤의 현재 주가는 연초 대비 약 30% 상승했다.

SK텔레콤은 올해 4월 인적분할 추진을 처음으로 공식화하며 기업가치를 온전히 평가받아 미래 성장을 가속화하고 주주 가치를 제고하겠다는 목표를 명확히 밝혔다.

또 5월에는 자사주 869만주(발행주식 총수의 10.8% 규모)를 사실상 전량 소각하고, 6월 이사회에서 SK텔레콤-SK스퀘어의 약 6대4 인적분할과 5대1 주식 액면분할을 결의하는 등 주주 가치 제고 행보를 이어갔다.

최근에는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 제출을 완료하고 신설회사 사명을 'SK스퀘어'로 확정했으며, 12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주들로부터 분할 승인을 받았다. SK텔레콤과 SK스퀘어는 오는 11월 1일 출범하고 11월 29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임시주주총회에서는 SK텔레콤(존속회사) 기타비상무이사 선임 안건(최규남 현 SK수펙스추진협의회 미래사업팀장)도 통과했다.

/김종혁 기자 junhyuk@metroseoul.co.kr

가계빚·물가 부담 여전... 점진적 인상 방점

>> 1면 '기준금리 동결'서 계속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기준금리 동결로 숨고르기 중 경제성장세 둔화 영향도

내년에도 금리인상 압박이 유지될 것이라 분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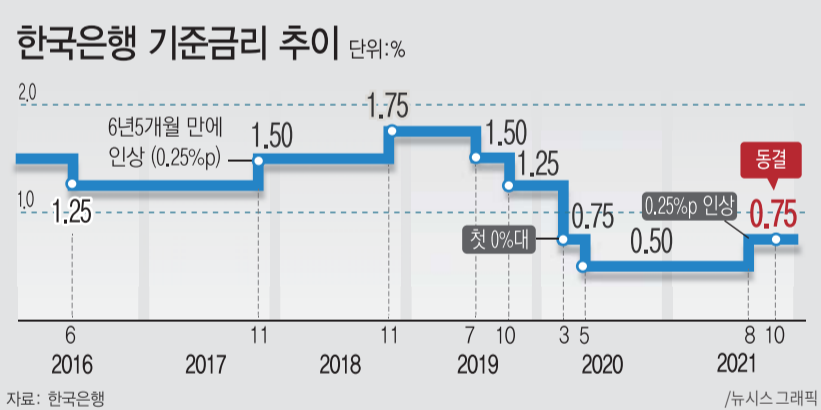
한은은 지난해 3월과 5월 각각 기준금리를 0.5%포인트(p), 0.25%p 낮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였다. 이후 코로나19 장기화가 이어지자 지난 7월까지 14개월 동안 9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해 왔다.

하지만 가계부채가 지속해서 늘고 주식·부동산 등 자산시장으로 유동성이 이동하면서 금융불균형 현상이 커졌다. 여기에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우려까지 더해지며 지난 8월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했다.

다만 아직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에 이번 금통위에선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실제 금통위는 금리를 동결한 배경으로 글로벌 경제시장에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지속 우려 ▲미 연준의 연내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가능성에 따른 주요국 국채금리 상승, 미 달러화 강세 등을 꼽았다.

특히 중국의 경제 성장세 둔화가 이어지는 점도 금리동결의 배경이라 분석이다. 중국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 18.3%에서 2분기 7.9%로 급락했다. 같은 기간 산업생산과



수출(통관기준)도 9.0%, 30.7%로 전분기 대비 크게 하락했다.

여기에 외국인투자자가 국내 증시에서 이탈하며 코스피 3000선이 무너지는 등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금리동결이 불가피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가계부채는 높은 수준의 증가규모를 이어갔지만 두 달 연속 금리인상을 결정할 경우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더 크게 나타날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물가가 계속해서 뛰고, 경기회복 흐름이 이어지며 오는 11월 25일 한 차례 남은 금통위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한은은 올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4.0%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 호조가 이어지면서다.

8월 경상수지는 75억1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흑자규모가 확대됐다. 9월 수출도 반도체 및 석유·화학 등을 중

심으로 588억3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6.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은 줄었지만 취업자수는 점차 늘어나며 국내 경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8월 취업자수는 전년 동월 대비 51만8000명 늘어나며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실업률도 2.8%로 전월(3.3%)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9월 들어 전년 동기보다 2.5% 오르며 2%대 중반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가 둔화했으나 석유류 가격이 높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다. 특히 외식물가 및 가공식품가격 오름폭이 확대됐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도 1.5%로 전월(1.3%)보다 상승했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월 전망경로를 상회하며 당분간 2%대 중반 수준을 나타내다가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근원인플레이션율은 대체로 1%대 후반 수준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

요동치는 증시, 떨고있는 개미들 역대급 빚투에 반대매매 '우수수'

이달에만 1219억 반대매매
개인 투자자 자금 이탈에
하락장 증시 추가 하락 우려

이달 들어 '빚투(빚내서 투자)' 개미들의 반대매매 금액이 12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증시 약세 국면에서 반대매매 규모가 함께 늘어나면 또다시 증시가 하락하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

1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4거래일간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실제 반대매매 금액은 1219억원으로 나타났다. 일평균 305억원 수준이다. 일평균 반대매매 금액이 지난 8월 230억원, 9월 171억원이었음을 감안했을 때 크게 늘어난 수치다. 지난 6일에는 반대매매 금액이 394억원을 기록해 2011년 이후 역대 두번째 기록을 달성하기도 했다.

반대매매는 개인이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투자를 했지만 주가가 하락해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강제로 매도되는 것을 의미한다. 증권사는 상환기한 안에 돈을 갚지 못하면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식을 강제로 처분한다.

특히 미수거래는 일정 담보가 필요한 신용거래와 달리 전체 주식 매입 대금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증거금만 내고 주식을 살 수 있다. 일부 증권사에서 신용공여 한도 유지를 위해 신규대출을 제한하거나 중단하기 시작하자 위탁매매 미수금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이 고강도 가계부채 관리대책으로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 축소 등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위탁매매 미수금 규모는 이달 들어 일평균 381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9월 일평균 미수금 규모(2789억원) 대비 36.8% 급증했다. 지난 9월 초만 해도 2600억~2800억원 규모를 이어오던 위탁매매 미수금이 지난 7일 4250억원까지 치솟았다.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금액이 커진 것은 국내 증시가 급락하면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미국 부채한도 협상 관련 불확실성 ▲중국恒大그룹발 유동성 위기 ▲공급망 병목현상 장기화 등 불투명한 대·내외 전망이 투자심리 악화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올해 3분기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증시(코스피+코스닥) 일평균 거래대금은 19조3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1분기(24조5000억원) 대비 5조원 이상 줄어든 셈이다.

증시 하락으로 '빚투'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은 더 커지고, 반대매매로 인해 증시가 추가 하락하는 악순환 고리가 생길 수 있다. 증시 하방을 지지해온 개인투자자들의 자금이 이탈하기 때문이다.

하인환 KB증권 연구원은 "최근 금융당국이 증권사에 신용공여 한도 관리를 주문했다는 소식은 개인 수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라며 "추가적인 신용거래가 제한될 수 있는 환경에서 나타난 최근 증시 조정으로 반대매매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